

벌써 2007년도 세밑이 다가옵니다.
 돌아보면 바쁜 한 해였습니다. 다른 일도 많았지만
 특히 저로서는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은 느낌입니다.
 자유인으로 살아오다 검은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정시에 출퇴근하는 샐러리맨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우리 사무처에
 새 사무처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인 저와 새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다시 2기 위원회를 열심히 꾸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앞에 닥친 대선 이후의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국내 정세 못지않게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사회를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역할과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신념과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한 인도 철학자에 의하면
 꿈을 오랫동안 절실하게 간직하면
 현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사는 수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의
 사회통합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간 <문화예술> 2007년 겨울호는 이러한 때,
 우리가 꿈꾸는 문화세상과 새로운
 문화비전에 대한 통찰을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2007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해에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 정 현

